

헌법재판소 미디어관련법 무효청구 기각 결정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9일 야당의원 93명이 김형오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신문법, 방송법 등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국회입법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청구인들의 방송법 및 신문법에 대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미디어법 기결선포 무효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해 시정과 관련한 역할은 국회의 몫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종편/보도전문 PP 및 미디어랩 도입 등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의 허용을 담고 있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PR협회 20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PR협회(회장 정삼국 LG 부사장)는 지난 11월 5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2009PR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삼국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20년간 한국PR협회가 우리나라 PR산업의 활성화와 PR활동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 왔다면, 앞으로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PR활동을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는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PR협회는 새로운 기업이미지통합(CI)을 제정, 발표했다. 올해의 PR대상 시상식에서는 SK 브랜드관리부문장인 권오웅 부사장이 '2009 올해의 PR인' 상을 받았다.

2009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개최



지난 11월 2일부터 3일간 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양휘부) 주최로 '2009 대한민국 공익광고제'가 개최됐다. 이번 광고제는 세종문화회관과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에서 있었던 각종 광고 전시회를 비롯해 공모전 시상식, 세미나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또한 이번 광고제는 단순 공모에 그쳤던 공익광고대상을 업그레이드해 지원층 공동의 관심사인 환경문제를 기본 주제로 설정하는 등 차별화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11월 2일부터 3일간 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양휘부) 주최로 '2009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 동향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의 1권역 사업자인 전총은 지난 9월 우선적으로 심의를 받은 11기에 대한 착공에 돌입, 신공항고속국도변 3기, 영동고속국도 2기, 경부고속도로 1기 등 총 6기의 야립광고를 우선보였다. 화면 규격은 가로 18m, 세로 8m. 전총은 또 지난 10월 14일 추가적으로 1권역 2기에 대해 심의를 받음으로써 1권역에 총 32기의 야립광고물을 세울 수 있게 됐다.

한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는 지금껏 사업자를 찾지 못한 나머지 물량에 대해 5차 입찰을 실시했다. 이번 입찰에 부진 물량은 계속되는 유찰로 인해 3-1, 3-3, 4-2, 5-1, 5-2, 5-3 권역 등 소권역으로 쪼개어 실시했고, 그 동안 고수해 왔던 물량과 예가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김포공항 국내선청사 광고 인증 광인 지속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가 발주한 김포국제공항 국내선청사내 광고를 운영자 선정 입찰에서 인종이 1·2층 광고를 39기를, 광인이 3층의 광고를 46기를 확보해 기존에 운영해 오던 매체사업을 사업금액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인종은 연간대료 12억 2,760만원을, 광인은 연간 임대료 18억 1,200만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다.

2009 국제광고 컨퍼런스 및 대한민국 광고대상 시상식



'한국광고단체연합회(회장 남상조)는 지난 11월 3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2009 한국광고대회'를 개최, 유공광고인 정부포상 및 국제광고 컨퍼런스, 대한민국 광고대상 시상식 등을 가졌다. 이날 유공광고인 정부포상식에서는 홍석규 휘닉스커뮤니케이션즈 회장이

동탑산업훈장을, 권오웅 SK주식회사 브랜드관리부문장이 산업포장을 받았다. 국제광고 컨퍼런스에서는 '신유행 방송광고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Rick Sizemore(President of Multimedia Intelligence) 회장과 박현수 교수(단국대), 황정선 교수(중앙대), 심성욱 교수(한양대) 등이 발제와 토론을 맡았다. 한편 '2009 대한민국 광고대상' 시상식에서는 종진코웨이 기업PR '시후 다큐 캠페인'(광고회사 제일기획)이 대상을, 광고모델상에는 피겨요정 김연아 선수가 선정됐다.